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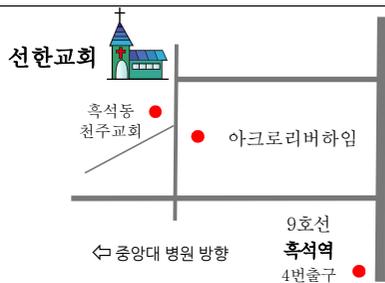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외협력선교사	이금춘, 김인실
	박 희 태, 유 신 웅		조나단, 강야엘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14)

추수감사절
축제예배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경 배 와 찬 양

찬양팀

기 도

조운익 장로

특 송

최영석 집사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간 증

지 영 집사

동 영 상

이제는 회복할 때입니다.

말 씬 봉 독

고린도후서 2장 12 ~ 17절

설 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미련한 사람의 삶 (잠26:13-28)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 수 감 사 절 축 제 예 배**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부예배(11시)는 축제예배로 드립니다.
- 임시사무처리회**

12월 5일 주일 2부예배 후 임시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 나누어 드립니다.
2부예배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2. 주중예배: 대면예배로 드리고
금요기도회는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이상송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삶이 되도록

찬송 :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통399)

본문 : 누가복음 18장 10~14절

말씀 : 갓 태어난 아기는 너무나 연약해서, 바른 자세로 안아야 아이가 다치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할 때에도, 바른 자세로 운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아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바른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영혼을 해치는 예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두 명의 예배자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 두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예배가 바른 자세로 드리는 예배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군중 앞에 서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자신을 위한 기도를 소리높여 외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자신의 금식과 십일조의 철저함을 말합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맡겨둔 자신의 샅입니다. 내가 의로우니 당연히 축복과 은혜는 내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예배자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반면 세리가 한 말은 단 두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자신의 갈급한 필요를 주님께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덮다'라는 '카파르'입니다.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의 뚜껑 즉, 그룹날개 아래를 의미하는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말합니다. '덮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주소서(은혜로 덮어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이런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겸손한 자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자세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꼭 죄인이라는 말만 반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절실한 필요를 주님께 겸손히 아뢰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는 두렵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는 외롭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서.

제목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고후2:12-17)

서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향기입니다.

1. 그리스도의 향기

- (1) 감사내용(14절): ①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
②우리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심
(2)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15절)
(3) 향기사역: ①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함(16절)
②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사용함(17절)
본론 ③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선행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함(마5:16)

2. 교훈

- (1)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2)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일해야 하는가?
(3)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있는가?

결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윤익 장로	조계승 장로

매일 Q.T.		진정성 있는 삶에 존경이 따릅니다	날짜 : 11월 22일
찬양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본문	욥기 29:18-25		
말씀요약	지난날 욥은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자신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며, 자신의 영광이 날로 새로워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희망을 걸었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처럼 욥은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상질문 1	장구한 삶을 소망하는 욥 29:18-20 욥이 장구한 삶을 확신하고 소망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재 상황만으로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욥 29:21-25 존경받는 욥의 모습에서 배우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욥의 모습 중에서 내가 본받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욥기 29장 19절 욥은 자신의 생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의 뿌리는 물로 힘 있게 뻗어 나가며, 건기에도 이슬이 풍성히 맺혀 번성하는 인생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은혜의 때가 다시 오길 갈망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의 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많은 이에게 존경과 주목을 받으며 큰 영향을 끼쳤던 욥의 의로운 삶에 제 삶을 비추어 봅니다. 고난이 닥쳐 인생의 영광스러운 날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변함없이 선을 행하며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이끌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새 67, Ab→G)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일곱 살 딸을 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몸이 아파서 6개월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남편의 가족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더니 남은 가족 한 명도 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넷째 아이를 배고 있던 이 여인은 태반조기박리로 7주 가까이 입원 치료하며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그녀의 아이는 사산되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그분이 가족을 붙들고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삶의 1분 1초를 그분의 통치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연중에 선을 긋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계획과 방식대로 제한하며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말씀 나누기	욥기 31:1~23		
목상포인트	욥은 마지막 고백을 통해 마침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호할 최후의 수단인 맹세를 통해 무고함을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그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곧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과 관계 법칙이나 율법적 의로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분은 한 인생을 파고드셔서 그분을 향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욥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나요?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나요?(4, 6절)		
적용하기	감찰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내가 하지 않을 일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각 사람의 삶을 살피시고 행동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죄 없이 고난받는 자의 소망, 전능자의 '무죄 선언'	날짜 : 11월 26일
찬양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본문	욥기 31:24-40		
말씀요약	욥은 재물을 기뻐하지도, 해와 달의 빛남에 유혹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수의 생명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모두 배부르고 나그네조차 대접을 받았습니다. 욥은 이런 자신을 누가 고발하겠다면 고소장을 써 보라고 합니다.		
목상질문 1	재판에 회부될 만한 죄악이 없다 31:24-34 욥이 실천한 '이웃 사랑'(원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내 삶에서 실천할 이웃 사랑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명예 선언이 될 고소장 31:35-40 욥이 강력한 '맹세 발언'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나의 결백함을 아시는 주님께 담대히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욥기 31장 26-27절 해와 달이 아무리 아름답고 눈부셔도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은 '손으로 입맞춤을 보냈다면'이라는 말고, 해와 달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해 그것을 경배하는 표시레 제 손에 입 맞추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은밀한 우상 숭배 행위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도록 예민한 분별력을 갖고 철저히 삼가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부자여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은밀하게 죄를 품지 않으려 한 욥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웁니다. 죄와 유혹이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말씀의 울타리를 넘지 않게 하소서. 탐나도 빛나는 그 무엇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매일 Q.T.		주권자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소외와 적대	날짜 : 11월 23일
찬양	찬송가 34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본문	욥기 30:1-15		
말씀요약	욥은 상황이 바뀌어 모두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비천하고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의 자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욥을 조롱하고 놀리며 미워해 침을 뱉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의 품위는 날아가 버립니다.		
목상질문 1	과거와 반대되는 욥의 상황 30:1-8 고난당하는 욥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뜻밖의 재난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이에게 나는 어떤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나요?		
목상질문 2	사람들의 적대적 행동 30:9-15 욥은 사람들의 적대적 행동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았나요? 내게 발생한 모든 문제는 결국 누구와의 관계에서 풀어 가야 할까요?		
한절묵상	욥기 30장 15절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 버리니"라는 표현에서 '그들'은 '공포'를 가리킵니다. 공포 앞에 꼼짝 못 하는 욥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욥을 사로잡고 그의 품위를 날려 버립니다. '품위'는 욥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의미합니다. 고난보다 위협적인 것은 고난이 초래하는 '공포'입니다. 공포는 오랜 세월 쌓아 올린 명예를 날려 버리고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고난에 처해도 공포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본이 되는 삶을 살다가 놀림거리가 된 사람의 울분 섞인 하소연을 들으시는 하나님! 저를 곤고하게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 아니시냐고 따져 묻고 싶습니다. 무기력하게 축 늘어져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매일 Q.T.		응답되지 않는 탄식, 통곡과 애곡이 되다	날짜 : 11월 24일
찬양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본문	욥기 30:16-31		
말씀요약	욥은 환난에 사로잡혀 끝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던져 버리시고 티끌과 재 같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르짖지만 주님은 대답하지도, 돌아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빈궁한 자들과 마음을 같이했던 일을 추억합니다. 그는 환난으로 인해 통곡과 애곡을 멈추지 않습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의 적대적 행동 30:16-23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분은 그에게 어떻게 대응하신다고 하나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묵상질문 2	애가로 변한 욥의 노래 30:24-31 욥은 회중 가운데서 경험한 소외감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철저한 소외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한절묵상	욥기 30장 16절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라는 말은 한 사람의 내면이 환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바가지의 물을 한번에 땅에 쏟아붓듯, 한 사람의 내면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때로 극심한 고난은 한 사람의 내면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생명(삶)에 대한 의지와 기운을 땅에 쏟아 버려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운 고난 앞에서 성도가 취할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 더욱 엎드리는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생명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환난 날에 제가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통곡을 그치게 하시고 끝없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잔혹하게 내쳐진 것 같은 시련의 광야가 저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축복의 현장임을 알게 하소서.		

매일 Q.T.		예배자의 삶이 동반된 진실한 맹세	날짜 : 11월 25일
찬양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본문	욥기 31:1-23		
말씀요약	욥은 자신이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주실 기업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살피보시면 자신의 온전함을 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해 가난한 자, 고아, 과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묵상질문 1	속임과 탐욕에 대한 무죄 맹세 31:1-12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맹세의 형식을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당하게 맹세할 정도로 내가 지켜야 할 거룩함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부끄럽지 않은 선행의 삶 31:13-23 유일신 신앙과 창조주 하나님 신앙이 욥의 인간관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공평하게 대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절묵상	욥기 31장 1절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마귀는 눈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유혹합니다. 유혹을 따라 보암직하고 먹음직 한 것을 좇아 살면, 죄밖에는 지을 것이 없습니다. 욥은 안목의 정욕과 싸워 이기기 위해 스스로 언약을 세워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눈에 담아야 할 것은 음란과 정욕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 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 삶의 걸음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음란함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눈을 지키게 하소서. 배고픈 이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소서.		